

강이야기

4

River & Culture



차 영 민 | 부산 석포초등학교
2학년



차 성 태 | 현대엔지니어링(주)
수자원개발부 차장
(cst77@hec.co.kr)

가하는 하천여행

아빠 최고예요!

부산 수영강에서



오늘 밤은 잠이 오질 않는다. 어제 서울에 계신 아빠가 우리 동네 수영강 위에 있는 원동저수지에 견학을 가자고 하시기 때문이다.



옛날에 내가 어릴 적에 밀양에 있는 유천강에서 사촌누나들과 수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떠올라서 기분이 좋아졌다.

내일은 꼭 보고 싶은 만화영화가 있었는데... 정말 기다리던 만화영화를 포기하고 아빠를 따라 나서기로 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아침이 되었다. 내 동생 서윤이는 수영하러 빨리 가져와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고 난리다. 여름도 아닌데 수영을 할 수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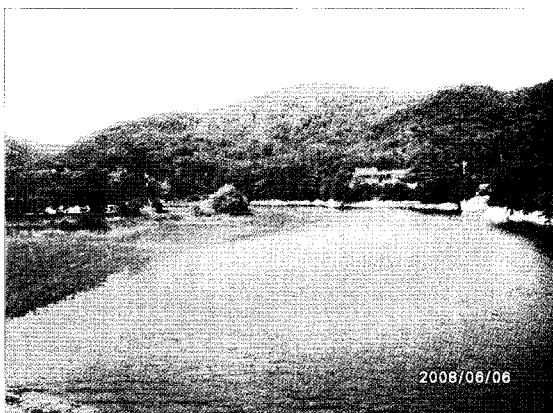
우리 집 자동차에 아빠, 엄마, 서윤이, 나~~ 붕붕 모두 원동저수지로 출발~~~야호~~! 내가 좋아하는 아빠랑 함께 떠나는 견학이 신났다.

우리 동네에는 부산에서도 유명한 광안리 바닷가에 광안대교가 있다. 바다 한가운데 다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 가족은 광안대교를 지나간다. 바다 위를 자동차가 날아서 가는 기분이 들었다.

조금 있으면 저수지에 도착한다. 나는 물놀이 하는 것을 제일로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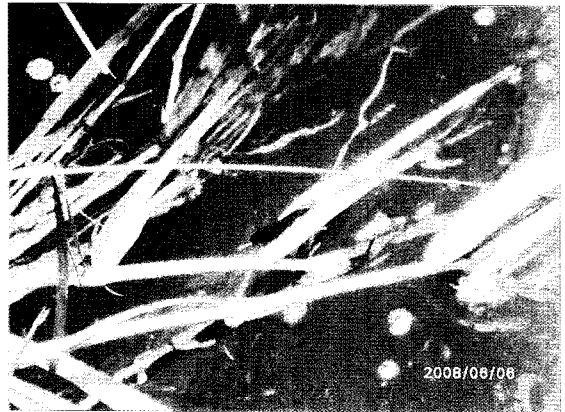
‘자동차야 좀 빨리 달려라’ 마음속으로 이야기 했다.

엄마가 저수지가 앞에 보인다고 하셨다.



저수지 옆에 있는 수풀이 동생 서윤이 키만큼 자라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멋있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풀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부드럽다. 아직은 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빠가 위로 높이 올라가면 잘 보인다고 해서 아빠 손을 잡고 저수지 좀 높은 곳에 올라갔다. 넓은 강이 보인다. 어른들은 강을 보니 마음을 차분해진다고 하셨다. 나도 강물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많이 좋다.



강물 옆에는 새소리도 들리고 벌레들이랑 봄에 태어난 봄잠자리도 날아다녔다.

또 노랑색깔 꽃도 피었다. 잠자리를 보니 우리 집에 아빠랑 옛날에 만든 새총이 생각났다. 새총으로 잠자리 한 마리 잡아서 집에 가져가고 싶어진다.

엄마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소리가 너무너무 좋단다.

나무들이 ‘사각사각’ 이야기 하는 것 같다.

바람 때문에 강물이 움직이는데 물결이 꼭 서울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주름살 같아서 보고 싶어졌다.

저수지 옆에는 산으로 둘러 싸여 있었다. 나무가 많은 산에 커다란 돌들이 띄엄띄엄 보이는 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저 돌이 굴러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강물 위에 자라는 풀들이 꼭 늪지대 같아 무섭다.

‘악어가 한 마리 나온다면.... 무서워라~’

나는 빨리 도망갈 수 있는데 내 동생 서윤이가 걱정이다.

엄마는 저수지 옆에 버드나무, 이끼, 노랑붓꽃, 산에 아카시야 나무, 밤나무, 꿀밤나무, 윗나무 이름을 하나씩 가르쳐 주

섰다. 나는 마음속으로 모양을 보고 이름을 외었는데 비슷 비슷해서 잘 모르겠다.



그런데 수영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집에서 수영복 준비를 빠뜨렸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차를 타고 좁은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어제 비가 왔는데 흙길에 자동차에 파여서 자동차가 뒤뚱뒤뚱 청룡열차처럼 달리니 너무 너무 우습고 더 많이 신이 났다.

아빠는 좁은 길로 계속 달린다.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달려온 길이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돌아가는 길이 없어질까 봐서 걱정이 되었다. 엄마, 아빠께 올 수 있냐고 계속해서 물어봤다. 계속 걱정이 되는데도 자동차는 달려가고 있다.

좁은 길을 지나서 가는 길 중간 중간에 작은 밭들이 있었는데 엄마는 주말농장이라고 하셨다. 상추가 내 손바닥만 하게 자라나고 있는데 삼겹살 씹싸서 먹고 싶어졌다. 옆에는 별장도 있었는데 별장대문 앞에는 옛날 향아리가 있어서 조금 이상했다.

작은 밭도 보고 작은 별장도 보고 또 작은 폭포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도 보았는데 물이 모일 때 가운데가 투명색이라서 신기하기도 했다. 작은 폭포 옆 계곡에는 갈대가 피어있다. 바닥에는 돌이 많이 깔려있었는데 물은 깊지 않아서 수영하고 싶어졌다.

그곳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서 아빠에게 물어보니 '잠수교'라 하신다.



그리고 내 동생 서윤이랑 잠수교에 '퐁당'하고 빠져 봤다. 같이 물놀이를 하면서 잠수교 주변에서 놀았는데 참 시원하고 재밌었다. 날씨는 뜨거웠는데 강물이랑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고 시원했다.

갈대에 붙어서 살고 있는 무당벌레, 소금쟁이들이 그림책에서 보았던 것이라 똑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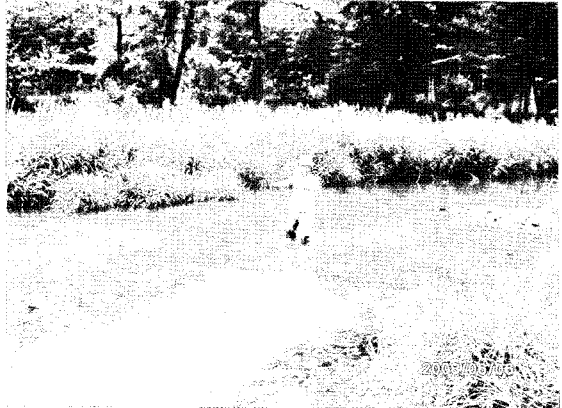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은 처음으로 보았는데 우리가 물에

서 손을 흔들면서 물장구치는 것처럼 하고 소금쟁이들도 놀고 있었다.



소금쟁이를 내가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고, 쫓아가면 더 멀리 달아나고 너무 빨라서 놓쳐버렸다. 물속에 물고기는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닥을 몇 번 झा다보니 동생이랑 나는 옷이 젖어서 오줌 싼 거 같았다. 너무 재미있고 신이 나서 찻찻한 것도 잊어버렸다.

나는 잠수교를 처음 봤을 때 좋아서 많이 흥분했다. 신발을 벗고 동생이랑 손잡고 잠수교 위를 몇 번을 뛰어다니고 강물에 앉아서 물장구 쳤다. 정말 재미가 있었다.



나중에 놀다보니 배가 많이 고파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 아빠랑 여행하는 것이 즐거웠고 소고기 먹는 것은 더욱 즐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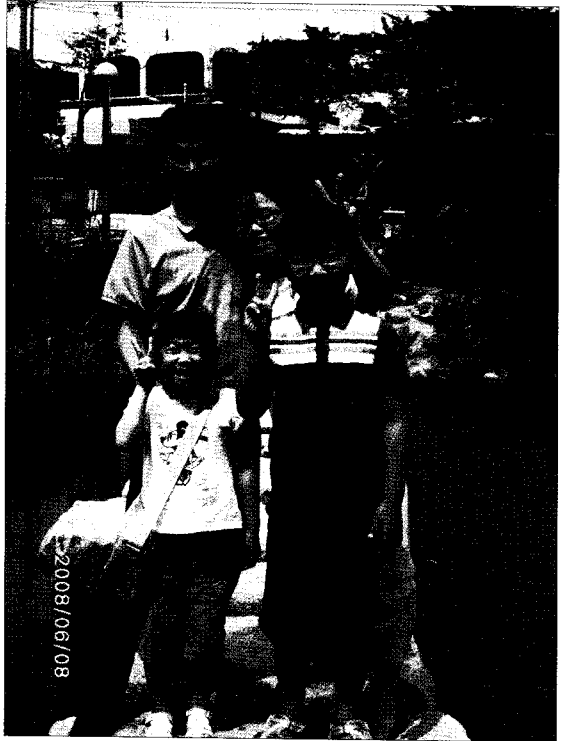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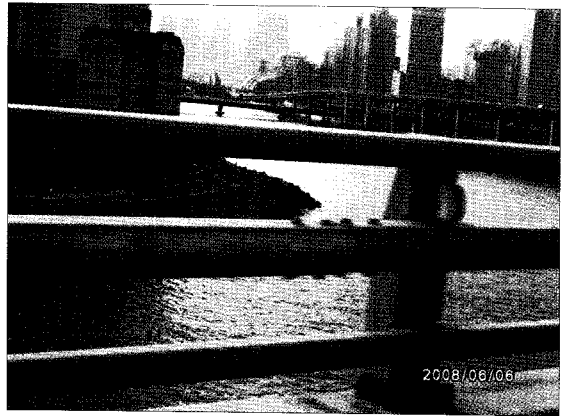
소고기 집 이름은 '옛날 한우집'이었다. 그 집 앞에는 내천(철마천)이 있었는데 아빠랑 나랑 서윤이는 강변에 나뭇잎을 따서 물에 띄워 나뭇잎 멀리보내기 경주를 했다.

내가 띄운 나뭇잎은 아래로 넘실넘실 잘 떠내려갔다. 갑자기 돌맹이에 걸리는 바람에 경주에서 동생에게도 지고 말았다. 다시 몇 번을 했지만 나뭇잎이 자기 마음대로 떠내려가서 이길 수가 없어서 약이 올랐다. 그래서 또, 또, 또 이길 때까지 계속 시합을 했다. 즐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팔뚝이 모기한테 물려서 가려웠다. 소금쟁이는 물이끼 먹고 사는데 모기는 왜 사람피를 먹어

야사는 건지 모르겠다.

팔뚝은 가려워서 짜증이 조금 났지만 재미있게 놀아서 괜찮다. 내일 또 가고 싶다.



부산 동래 온천천에서

어제 수영강에서 수영하고 놀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었는데...

아빠는 내 마음을 아셨나보다. 아침밥을 먹는데 아빠가 오늘은 수영강으로 물이 흘러 내려오는 위쪽에 있는 하천으로 바깥놀이 출발하자고 하셨다.

아싸~!!! 나는 옷장을 뒤적뒤적 수영복을 찾았다.

기분 짱~!! 아빠랑 나는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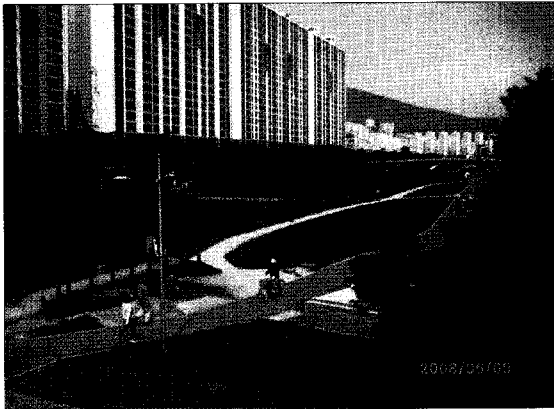
아파트 사이로 우리집 붕붕차가 달려간다. 도착한 곳은 어제와는 조금 다른 도시의 아파트가 빼곡한 사이에 있는 '온천천'이었다.



아빠께서는 옛날에는 공장폐수로 물이 썩어서 냄새가 심
각했는데 2003년도에 지금의 모습처럼 생태하천으로 만들
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냄새는 많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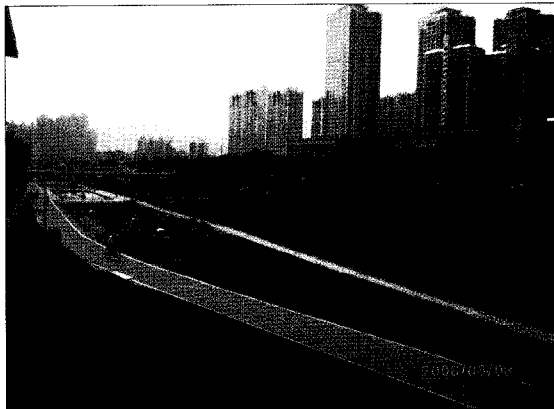
높은 독에서 바라보니 산책로가 길었고 풀과 꽃들이 처
음부터 끝까지 예쁘게 자라고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산책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나도 자전거를 가지고 올 걸
하고 생각했다.



징검다리 아래로 물이 많이 흘렀는데 물고기가 보이지를
않았다.

자세히 보니 물이 더러워서 물고기가 살지를 못하는 것 같
았다. 옆에는 키가 큰 풀들이 있었는데 그 아래에는 소금쟁
이가 수영을 하고 있다.

엄마는 어제처럼 우리에게 모르는 풀들 이름을 가르쳐 주
셨는데 가장 키 큰 풀은 부들, 갈대이고 작은 꼬마 풀은 콩재
비꽃, 붓꽃이 있었고 멀리 분홍색 꽃은 수국이라고 하셨다.



나와 내 동생 서윤이는 운동시설에 가서 팔운동, 다리운동
하고 난 후에 징검다리로 달려갔다.

수국꽃은 내가 처음으로 본 꽃인데 색깔도 예쁘고 작은 꽃
잎이 너무 예뻐서. 언덕 아래 돌 틈에 끼여서 꽃이 피었는데
철쭉꽃이라고 한다. 또 노랑색 꽃은 외국에서 수입해온 코스
모스라고 했다. 모두 신기하고 이쁜 꽃이다.

수입하니깐 생각이 나는데 어제 우리가족은 소고기를 맛
있게 먹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우리 가족은 두 번째 돌다리 옆으로 지나왔다.

돌다리 앞에서 동생 서윤이가 경중 경중 뛰어 노는 모습이



꼭 산토끼 같아서 우스웠다.

돌다리 아래로 내려다보니 물고기 한마리가 죽어있었다.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 강물도 어둡고 냄새가 심하게 났다. 여기서 수영을 한다면 나도 나쁜 물을 마시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거나 앓을까 조금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수영하는 것은 오늘도 포기해 버렸다.

온천천에는 폭신한 잔디가 곳곳에 있었다. 아빠랑 나는 축구공을 가지고 공주고 받기도 했다. 재미있었지만 나는 자전거를 썩썩타고 달려서 온천천이 처음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수영강을 만나는 끝까지 가보고 싶었다.

아빠! 아빠랑 함께한 하천여행 최고예요!



여행후기

하천과 문화에 기고도 하고 가족들과 모처럼 여행도 갈 겸 해서 인근에 위치한 수영강 상류에 자연하천과 도심지에 위치한 온천천 자연하천 정비구간을 계획하여 여행을 다녀왔다. 당초 당일로 계획하였으나, 수영강 주변에 유적지와 자연경관을 둘러보다보니 하루가 다 지나서 1박2일로 기간이 늘어났다.

수영강 상류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자체에서 수질 및 환경보존에 관심을 기울여서 인지 수질도 매우 좋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서 매우 뜻 깊은 여행이 됐다.

각종 수변식물들과 곤충들, 각종 산새, 물고기들, 주변 산들은 아이들에 시선을 붙잡는데 충분한 볼거리가 되었고, 가

는 곳곳은 강변은 아이들에 놀이터로 충분했다.

모처럼 가족들과의 나들이가 유명한 계곡이나 관광지를 찾아 멀리 가는 것 못지않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 매우 좋았고 이번 계획을 추진한 나 또한, 가장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다음날 갔던 온천천은 도로(제방겸용도로)에서 내려다 볼 때는 공간배치가 깔끔하고 좋았으나 전날에 느꼈던 감동보다는 다소 기대감에 못 미쳤다.

뜨거운 햇살로부터 피할 공간이 없었고, 도심지에 위치하다보니 수질 및 공기가 맑고 깨끗하지 못했다. 각종 운동시설이나 휴식공간은 도심지에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제의 감동이 너무 컸던 우리 가족에게는 다소 실망감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순서를 바꿀 걸 그랬다 ㅎㅎㅎ.

지자체(동래구)에서는 황량한 도심지에 하천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상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등 많은 배려를 하여서 주변 지역주민들에 좋은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우리집 부근에 이런 하천이 있다면 퇴근 후 애들과 인라인도 타고 산책도 하는 등 좋은 공간으로 이용할 텐데 우리집 근처에는 이런 하천이 없다는 게 크게 아쉬웠다.

역시 하천은 자연 그대로 보존될 때가 가장 좋은 듯하다. 부득이 개발에 의해 인공정비가 부득이하다면 온천천처럼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정비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듯하다.

여하튼 이번 탐방을 계기로 아이들에게 아빠가 하는 일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되고 탐방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나 자신 스스로 만족스러웠으며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매우 기뻐다. 🙏